

# 일본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서지적 연구

## A Bibliographic Analysis on the Classical Novels for Rental which Kyoto University has in Japan

유 춘 동 (Yoo, Choon-Dong)\*

### ◁ 목 차 ▷

1. 서 론	3.1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서지
2.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수집 과정	3.2 아현 세책점,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위상
3.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서지와 특성	4. 결 론 <참고문헌>

### <초 록>

이 글은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貰册古小説)에 대한 연구이다. 이 세책 고소설은 가와이 히로다미[河合弘民, 1873-1918]가 1907년에 동양협회전문학교(東洋協會專門學校) 경성분교(京城分校)의 교사 겸 간사로 경성(서울)에 부임하여 채류하면서 수집했던 것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세책 고소설은 11종 28책으로, 당시 경성(서울) 아현동에 있었던 아현세책점(阿峴貰册店)에서 모두 구매했다. 세책 고소설은 『금향정기』, 『김씨효행록』, 『남정팔난기』, 『백학선전』, 『삼육삼주전』, 『장국진전』, 『장백전』, 『장한절효기』, 『전운치전』, 『제갈무후전』, 『징세비태록』으로, 이 중에서 『백학선전』, 『장백전』, 『제갈무후전』은 현재까지 교토대학에서만 확인된다.

교토대학에 있는 세책 고소설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경성에 있었던 다른 세책점의 세책과 외형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아현 세책점의 세책본은 구활자본 고소설의 저본(底本)이 되었다는 점, 세책업자가 방각본(坊刻本)을 베껴 세책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여했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 교토대학의 세책 고소설을 통해서 세책점에서 독자적으로 세책을 제작하는 한편, 방각본을 활용하여 세책점을 운영했다는 중요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서지와 특성 등을 다루었다.

要語: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學], 세책 고소설(貰册古小説), 아현세책점(阿峴貰册店), 가와이 히로다미[河合弘民], 세책(貰册)

\*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sechaek@hanmail.net)

■ 접수일: 2017년 3월 10일 ■ 최초심사일: 2017년 3월 18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4일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classical novels for rental which Kyoto University has in Japan. The classical novels for rental which Kyoto University has in Japan were collected by Kawai Hirodami [河合弘民, 1873-1918] from Gyeongseong (present Seoul) in 1907 when he was appointed as a teacher and assistant administrator in Gyeongseong Branch School of Dongyang Association Technical School.

His collected editions we can find now are total 11 kinds and 28 pieces. He bought them in Ahyeon Book Rental Shop located in Ahyeon-dong of Gyeongseong (Seoul) then. The classical novels for rental include *Geumhyangjeonggi*, *Gimssihyohaengrok*, *Namjeongpalnangi*, *Baekhakseonjeon*, *Samoksamjujeon*, *Janggukjinjeon*, *Jangbaekjeon*, *Janghanjeolhyogi*, *Jeonunchijeon*, *Jegalmuhujeon*, and *Jingsebitaerok*, and among them, the originals of three kinds, *Baekhakseonjeon*, *Jangbaekjeon*, and *Jegalmuhujeon*, are only found in Kyoto University.

The classical novels for rental in Kyoto University are not very different from rental books found in other book rental shops in Gyeongseong (Seoul) from the late 19th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ir looks. They give us a variety of information, for example, thick covers and inners used to bind the books to reduce damage while being rent, emptying one letter or two on the last line to prevent the damage of text, scribbles made by those renting the books, and information about the book rental shops.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looks of the classical novels for rental existing then were quite typical.

However, the rental books of Ahyeon book rental shops found in Kyoto University are characterized by that they brought *banggakbon* novels and bound and transcribed them as two to three pieces for rental. This reveals a crucial fact that those book rental shops made rental books on their own, but they also used *banggakbon* previously made to operate a book rental shop. This helps us underst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ose making *banggakbon* who admitted the way. This study is going to deal with the contents in order.

Key words: Kyoto University, Classical novels for rental, Ahyeon Book Rental Shop, Kawai Hirodami, Rental Library Manuscript

## 1. 서론

이 글은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貫册古小説)<sup>1)</sup> 11종 28책의 서지(書誌)와 세책 고소설로서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 후기 고소설의 상업화와 상업출판을 논할 때마다 거론되는 세책 고소설은 대부분 해외 대학이나 기관에 존재한다. 이러한 자료 접근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세책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세책 고소설의 실상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자료에 대한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 교토대학은 일본의 동양문고(東洋文庫)와 더불어 많은 수의 세책 고소설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다. 필자는 몇 차례 세책 고소설을 논의하면서, 이곳에 있는 세책 고소설의 총량과 이 책들이 아현세책점(阿峴貫册店)에서 대여해 주었던 것임을 밝힌 바 있다.<sup>2)</sup>

그러나 세책 고소설 연구의 필요성, 국내외 존재하는 세책 고소설 전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정확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교토대학으로 입수된 경위, 서지 사항, 세책 고소설로서 텍스트가 지닌 특성 등은 논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문제들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일본 교토대학의 세책 고소설은 가와이 히로다미[河合弘民, 1873-1918]가 수집했던 것이다. 전체 11종 28책으로<sup>3)</sup> 이 자료들은 다른 기관에서 볼 수 있는 동일 제목의 세책도 있고, 이곳에만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다. 앞의 것은 세책과 세책 간의 관계, 세책점과 세책점 간의 관계를 규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sup>4)</sup> 후자는 새로 확인한 세책 고소설의 특성이나 특정 세책점의 세책과 운영 방식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

\*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의 자료들을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 세책 고소설은 조선 후기 세책점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대여해주던 책을 말하며, 현재의 도서대여점과 빌려주는 책과 유사한 것이다. 세책 고소설의 개념과 전반적인 상황은 이윤석, 大谷森繁, 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 (서울: 혜안, 2003), 42-49 참조.

2) 유춘동, “서울대 규장각 소장, 토정-약현 세책 고소설 연구,” 『한국문화』 66(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6), 147-167. ; 유춘동,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의미,” 『민족문화연구』 6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8), 283-309. ; 유춘동, “근대 초기에 해외로 반출된 고소설의 문제,” 『코기토』 77(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2), 173-174.

3) 교토대학에는 세책 고소설 이외에도 일반 필사본과 방각본 소설이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정병설의 논의 참조. 정병설, “일본 교토대학 소장 새 자료 소개: 한국 고전소설 14종 및 한글번역 〈서상기〉 외,” 『문헌과 해석』 28(서울: 문헌과 해석사, 2004), 216-227.

4) 유춘동(2014), 175.

## 2.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수집 과정

일본 교토대학에 세책 고소설은 최근에 와서야 실본(實本)이 확인되었다. 이 자료들은 훼손이 심하여 교토대학 도서관 측에서 자료 폐기를 결정했고, 그래서 이 책들을 일반 자료 보관실이 아닌 도서관 내의 폐기 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도서관의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이 책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곳을 방문했던 여러 고소설 연구자들에게도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연세대학교 이윤석 교수가 주관하는 ‘조선후기 세책 고소설 연구팀’이 교토대학을 방문하여 자료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찾아냈다. 서고(書庫)에 들어가 자료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도서관 한 쪽에 보관되었던 11종 28책의 세책 고소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sup>5)</sup>

이처럼 어렵게 찾아낸 세책 고소설에 대해서, 이러한 발굴 경위를 짚막하게 밝힌 바 있고, 그 중에서 『금향정기』와 『징세비태록』 두 세책 고소설의 특성과 가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이 “교토대학에 언제 들어왔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집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고, 두 종을 제외한 다른 세책 고소설의 서지와 특성을 논하지 못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수집한 사람이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古籍調査) 위원이었던 이마니시 류[今西龍]라고 추정했었다. 이는 도서관 직원들의 전언(傳言)을 그대로 전재(轉載)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가와이 히로다미[河合弘民, 1873-1918]가 수집했던 조선전적에 대한 『河合博士舊藏朝鮮書籍目錄』 목록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교토대학에 있는 세책 고소설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수집되었고, 교토대학으로 오게 된 이유”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림 1〉은 1919년에 가와이 히로다미가 소장했던 조선 전적을 정리한 도서목록의 일부분으로, 이러한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수집자, 수집 경로, 수집 시기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문학박사(文學博士) 가와이 히로다미(河合弘民)씨 [교토[京都] 문과대학(文科大學) 강사(講師)]가 수년 간 경성(京城)에서 수집한 조선서적(朝鮮書籍)으로, 우리 문과대학이 유족(遺族)으로부터 구입한 책의 목록이다.

다이쇼[大正] 6년(1917) 겨울부터 다음해인 7년(1918) 봄까지, 필자[이마니시 류[今西龍] 박사]가 조사하고 작성했다. (번역: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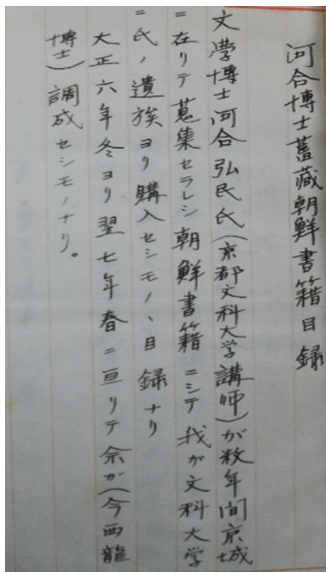
5) 유춘동, “근대 초기에 해외로 반출된 고소설의 문제,” 『코기토』 77(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2), 174.

이 내용을 통해서 11종 28책의 세책 고소설을 수집한 사람은 가와이 히로다미[河合弘民](이하 가와이로 약칭)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동경제대를 졸업하고 난 뒤에, 조선에 동양협회전문학교(東洋協會專門學校) 경성분교(京城分校)가 생기자 교사 겸 간사(幹事)의 직위로 1907년 조선에 입국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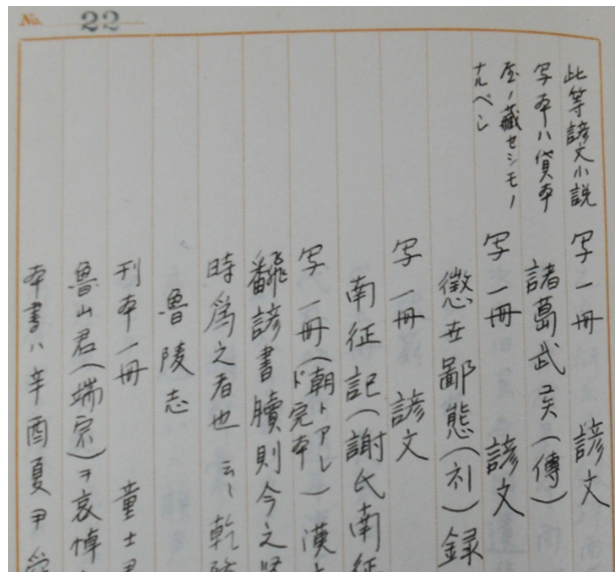
그의 전공은 조선사(朝鮮史)와 조선의 경제사(經濟史)로서, 이 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에 필요한 조선전적들을 직접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선시대 고소설도 모았다.<sup>7)</sup>

그가 수집했던 고소설은 일반 필사본, 방각본, 세책 고소설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에서 세책 고소설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차등(此等) 언문소설(諺文小說)은 가시혼야(貸本屋)에 있던 것을 구매했다”고 따로 적어 놓았다. 가시혼야는 우리나라의 세책점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는 이 책들을 1907년 세책점에서 모두 구매했다.



<그림 1>

『河合博士舊藏朝鮮書籍目録』  
(소장처: 한국연구원)



<그림 2>

목록 상단에 기재된 세책점 구매 기록  
(소장처: 한국연구원)

6) 가와이 히로다미[河合弘民]의 소개, 한국에서의 활동과 고전적 수집 과정, 가와이 히로타미와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개인수집가' 항목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참조.

7) 정병설(2004), 216-227 참조.

가와의 목록을 보면 “『장백전』 2책, 『정을선』 1책, 『곽해룡전』 3책, 『김씨열행록』 6책, 『남정팔난기』 9책, 『홍길동전(刊本)』 1책, 『금향정기』 3책, 『현수문전』 2책, 『장한절효기』 1책, 『정수정전』 1책, 『삼옥삼주』 1책을 가시혼야[貸本屋]에서 구매했다”고 했다.<sup>8)</sup> 목록만 놓고 본다면 총 11종 30책을 세책점에서 구매했다.

그러나 이 목록과 ‘이윤석 교수의 연구팀’이 발굴했던 자료의 총량, 작품명은 다소 차이가 있다. 교토대학 서고에서 ‘이윤석 교수의 연구팀’이 찾아낸 세책 고소설은 11종 28책으로, 종수(種數)는 맞지만 책수(冊數), 자료의 제명(題名)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현재 확인한 자료를 보면 방각본 세책 『홍길동전』은 없고, 작품 또한 『금향정기』 5책, 『김씨효행록』 1책, 『남정팔난기』 7책, 『백학선전』 1책, 『삼옥삼주전』 1책, 『장국진전』 1책, 『장백전』 2책, 『장한절효기』 3책, 『전운치전』 3책, 『제갈무후전』 2책, 『징세비태록』 2책으로 다르다.

이처럼 그가 기재한 내용과 현존하는 자료의 차이는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가와이가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고, 애초에 세책점에서 목록을 적어 그에게 팔면서 다른 작품을 끼워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sup>9)</sup>

교토대학에 존재하는 11종 28책의 세책 고소설은 이 책의 필사기(筆寫記)를 통해서, 제작 시기와 이 책을 대여해주던 세책점의 존재를 알 수 있다. 필사기를 보면 대부분 “무술스/오/월일 익현서, 기히 이월일 익현 필서, 기히 스월일 익현 필서, 기히 구월일 익현 필서/阿峴”로 기재해 놓았다. 필사기를 통해서 교토대학에 있는 세책 고소설은 현재 서울 아현동 지역에 있었던 세책점에서 1898년과 1899년 사이에 필사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대여해주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덧붙여 설명할 것이 있다. 바로 세책 고소설 『장백전』이다. 이 책의 필사기를 보면 행동(杏洞) 세책점의 세책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행동은 경성(서울) 남부(南部) 황금정 3정목(黃金町三丁目) 부근으로 『장백전』은 이곳에 있던 세책점에서 대여해주던 것이다. 가와이가 아현 세책점에서 자료를 구매하던 당시, 행동 세책점은 영업이 어렵게 되어 갖고 있던 책들을 아현 세책점에다가 넘겼기 때문에 이곳에 이 자료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

8) 고서목록의 작성자는 이마니시 류이다. 하지만 이 고서목록은 가와이 히로타미가 미리 작성한 목록을 토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와이의 기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 일본 동양문고에 있는 『삼국지』가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이다.  
10) 일본 동양문고에 있는 『홍길동전』은 원래 사직동 세책점의 세책이었는데, 자료를 모두 향목동 세책점에서 인수한 것이다. 고려대학교에 있는 세책 『김원전』 또한 이러한 정황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 3.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서지와 특성

#### 3.1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서지

교토대학에 있는 11종 28책의 아현동 세책을 보면 지금까지 국내의 기관에서 확인했던 세책 고소설의 외형(外形)과 동일하다.<sup>11)</sup> 표지는 대여 시에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껍게 장정(裝幀)했고, 일반적으로 한두 권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 작품 당 적게는 2책에서, 많게는 14책까지 최대한 권수(卷數)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매 권 마지막에다가 세책점의 상호(商號)를 기재해 두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다른 세책 고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책을 대여해갔던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낙서를 볼 수 있다. 낙서는 단순히 본문에 글자를 몇 자 적어놓은 것에서부터, 세책점 주인에 대한 욕설, 세책본의 내용이나 대여비에 대한 비난, 당대의 유행가(流行歌) 가사, 시대적 상황에 대한 소회, 음담(淫談), 세책점에 대한 정보 등이다.<sup>12)</sup> 이러한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형태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각 책의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번호	제목	권수(卷數)	장수(張數)	행수 및 행당 자수(字數)	필사기
1	금향정기	5권 5책 (낙질본, 권5 결본)	권1: 25	11행, 13~15자	무술(1898) 스월일 익현서
			권2: 27		무술(1898) 스월일 익현서
			권3: 27		무술(1898) 오월일 익현필서
			권4: 27		무술(1898) 스월이 익현은 필서
			권6: 26		세즈 무술(1898) 오월이 익현필서
2	김씨효행록	1책(낙질본)	권3: 27장	11행, 13~15자	정유(1897) 칠월 십오일 필서

11) 토정-약현세책점의 세책 고소설, 항목동세책점의 세책 고소설의 외형은 유춘동의 논문 참조. 유춘동, “서울대 규장각 소장, 토정-약현 세책 고소설 연구,” 『한국문화』 66(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6), 147-167. ; 유춘동,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의미,” 『민족문화연구』 6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8), 283-309.

12) 유춘동, “세책본 소설 낙서의 수집, 유형 분류, 의미에 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45(열상고전연구회: 2015. 6), 149-170.

번호	제목	권수(卷數)	장수(張數)	행수 및 행당 자수(字數)	필사기
3	남정팔난기	7책(낙질본, 권1~권5, 권11~12 결본)	권6: 30	11행, 13~15자	세지 기희(1899) 구월일 익현필서
			권7: 30		기희(1899) 구월일 익현필서
			권8: 28		세지 기희(1899) 구월일 익현필서
			권9: 29		세지 기희(1899) 구월일 익현필서
			권10: 27		세지 기희(1899) 구월일 익현필서
			권13: 29		세지 기희(1899) 십월일 익현필서
			권14: 29		세지 기희(1899) 십월일 익현필서
4	백학선전	1책 (낙질본, 권1 결본)	권2: 27	11행, 13~15자	낙장
5	삼옥삼주전	1책 (낙질본, 권1 결본)	권2: 27	11행, 13~15자	■■■■■■월일 익현필서
6	장국진전	1책(낙질본)	권 미상: 17	11행, 13~15자	낙장
7	장백전	2책	권1: 25	11행, 13~15자	세지 정유(1897) 중수 흥동서
			권2: 31		낙장
8	장한절효기	3책	권1: 31	11행, 13~15자	기희(1899) 일월일 익현필서
			권2: 29		낙장
			권3: 29		기희(1899) 이월일 익현필서
9	전운치전	3책	권1: 26	11행, 13~15자	기희(1899) 스월일 익현서
			권2: 25		세지 기희(1899) 스월일 익현서
			권3: 27		■■■■■■■■일 익현필서
10	제갈무후전	2책 (낙질본, 권3 결본)	권1: 26	11행, 13~15자	세즈[지] 정유(1897) 스월 필서
			권2: 27		세즈[지] 정유(1897) 스월일 필서
11	징세비태록	2책 (낙질본)	권1: 25	11행, 13~15자	■■■■■■■■일 익현서
			권2: 19		낙장

( ■ 표시는 원문 훼손으로 읽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하 이 표시는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교토대학 소장, 아현동 세책점의 11종 28책 세책 고소설의 서지를 보면, 1897년에서 1899년 사이에 30장 내외로 필사, 제작되어 사람들에게 대여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한 세책점과 세책 중에서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은 1891년에서 1892년 사이에 영업했던 토정-약현 세책점의 세책이다. 아현동 세책점은 그 다음으로 시기가 오래되었다.

아현동 세책점의 『금향정기』, 『김씨효행록』, 『남정팔난기』, 『백학선전』, 『삼옥삼주전』, 『장국진전』, 『장백전』, 『장한절효기』, 『전운치전』, 『제갈무후전』, 『징세비태록』에는 곳곳에는 세책을 대여했던 사람들의 다양한 낙서가 확인된다. 이 중에서 세책점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향정기』에는 “즉일 약현 거허 슈문서 길 가야 칙을 놓거”(권1)라는 낙서가 있다. 이는 약현(藥峴)에 사는 사람이 아현동까지 와서 세책을 빌려보았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육군 예식반 조치군”(권2)도 있는데, 이 낙서를 통해서 대한제국 때의 군대(軍隊) 편성의 일면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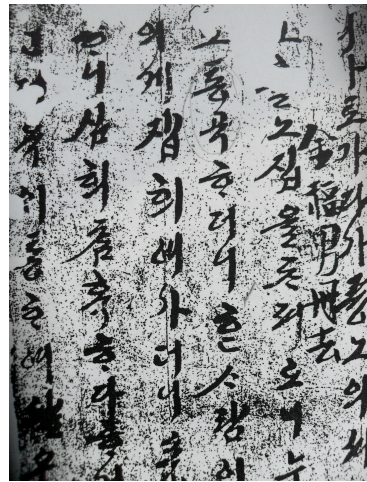
『김씨효행록』에는 책 주인에 대한 욕을 하면서 “이 칙주인은 김가요”(권2)라고 언급이 있어, 책 주인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남정팔난기』에는 “서주연의 六卷, 서유괴 六卷”(권10)이라는 낙서를 통해서, 아현동 세책점의 두 작품이 대여되었음을 보여준다.

『삼옥삼주전』에는 “세책점의 대여 장부(貸與帳簿)”(권2), “춘풍화류 변화시에”(권2)로 시작하는 당대의 유행가(流行歌), 서양에서 들여온 신문물(新文物)인 쾌종시계(권2), 신식 학교의 학생 모습(권2), 신식 군대의 군인 모습(권2), 양장(洋裝)을 차려 입은 여자 모습(권2), 경성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이층집의 모습(권2)처럼 당대 풍속과 시가지 모습을 재구해 볼 수 있는 낙서들이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아현동 세책 고소설의 낙서1



<그림 4> 아현동 세책 고소설의 낙서2

그리고 『장백전』에는 “金福男册去”(권1)이란 낙서(〈그림 4〉 참조)가 있어, 사람들이 책을 대여할 때, 대여자의 집까지 책을 가져다주던 사람이 있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무후전』에는 “이 책 갑시 헐하니, 뭇 권에 二 五里씩 흐라”(권2)라는 낙서가 있는데, 이 낙서를 통해서 아현 세책점의 대여료가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읽혔던 아현동 세책점의 필사본 세책 고소설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

구활자본으로 간행된 고소설에 밀리기 시작했고, 영업마저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점차 잊혀져가는 세책의 중요성을 알고 자료를 수집했던 사람이 가와이였다. 이 자료를 통해서 서울 아현동에 세책점이 있었고, 세책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 3.2 아현 세책점,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위상

이 장에서는 교토대학에 있는 아현 세책 고소설의 특성을 밝히기로 한다. 먼저 이야기하자면 아현 세책점은 비슷한 시기, 방각본(坊刻本)으로 만들어진 고소설을 가져다가 베끼면서 내용을 적절히 분권(分卷)하여 사람들에게 대여해주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아현 세책점의 세책을 보면 구활자본 고소설의 저본으로 세책 고소설이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아현동 세책점에서 대여해주던 11종 28책의 세책 고소설 중에서, 『금향정기』와 『징세비태록』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밝혔고, 이외의 세책 고소설 중에서 아현 세책점, 아현 세책 고소설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백전』, 『장한절효기』, 『제갈무후전』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sup>13)</sup>

#### 3.2.1 아현 세책점의 세책 고소설 『장백전』

고소설 『장백전』은 주인공 장백의 영웅적인 면모를 다룬 대표적인 영웅·군담소설이다. 현재 일반 필사본, 세책 필사본, 방각본, 구활자본의 형태로 다양한 이본(異本)이 존재한다.<sup>14)</sup>

이 소설은 장백이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朱元璋)과 건국(建國)을 다투다가 그에게 양위(讓位)하는 내용에 초점을 둔 연구가 있고,<sup>15)</sup> 소설이 설화로 유포되는 과정을 다룬 연구도 있다.<sup>16)</sup> 그러나 세책, 방각본, 구활자본 고소설을 함께 묶어서 각 이본 간의 관계, 생성과 특성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따라서 세책 고소설 『장백전』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책 『장백전』, 방각본, 활판본 세 본의 선후(先後) 문제와 이본 간의 관계이다. 세책은 필사기를 통하여 1897년에 필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세책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13) 아현 세책점의 『금향정기』가 방각본 고소설을 가져다 분권하고 필사하여 대여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이미 단행본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 이윤석, 유춘동, 『금향정기』(서울: 경인문화사, 2007), 168-171.

14)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서울: 박이정, 2006), 48.

15) 정인혁, “월령적 사유와 『장백전』의 의미,”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171-201. ; 김용기, “『太原誌』의 서사적 특징과 왕조교체,” 『고소설연구』 34(고소설학회: 2012. 12), 105-134. ; 주수민, “장백전의 형성동인과 주제의식,” 『어문연구』 41(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6), 207-231.

16) 강문중, “장백전의 설화화 과정과 그 양상,” 『장서각』 24(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0), 61-87.

이보다 훨씬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방각본은 29장본, 28장본이 있으나 1860년 무렵에 처음 간행된 이후에 장수가 축소되어 1910년대까지 간행되었다.<sup>17)</sup> 구활자본 『장백전전』은 여러 종이 있지만 대정(大正) 2년(1917)에 간행된 본이 가장 시기가 앞선다. 따라서 세 본을 놓고 일본의 생성 시기를 생각해 보면, 세책과 방각본은 비슷한 시기에, 구활자본이 가장 후대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세책과 방각본 간의 선후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고소설의 생성과 유통을 보면 필사본이 만들어진 뒤에 방각본, 활판본 순서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세책 고소설은 방각본보다 먼저 간행되었고, 경판본을 만드는데 저본(底本)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도를 생각한다면 “세책 → 방각본 → 활자본”의 순서로 『장백전』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예 1>

- 화설. 원나라 시절의 능취 신희 일위 명시 이시니 성은 장이요 명은 환이라. 디디 명문거족으로 소년등과하여 별술이 니부시랑의 이르미 ■■■■■■■■ 웃듬이요 충■를 겸비하고 일흠이 ■■의 자■하니 인〃 친척이 ■을 벗어되드라. 또한 성덕■■■ 공검청직하고 문학 정덕함을 ■■■■■ 충의 하시고 만죄 추앙허너니(세책, 권1, 1장 앞면)
- 원나라 시절의 능취 신희 일위 지상이 〃 스니 성은 당이요 명은 통이요 즈은 문경이라. 본디 한닌 당약의 후예로 공후장상이 끈츠지 안니하여 디〃로 공명이 현달하고 통능 겸전허더니 공의게 이르러는 벼술이 좌복야의 거허미 우흐로 나라의 통성이 지극하고 아리로 만민의게 덕이 만호되(경판 29장본, 1장 전엽)
- 화설. 원나라 시절의 능취 신희 일위 명시 이시니 성은 장이요 명은 환이라. 디디 명문거족으로 소년등과하여 별술이 니부시랑의 이르미 ■■■■■■■■ 웃듬이요 충■를 겸비하고 일흠이 ■■의 자■하니 인〃 친척이 ■을 벗어되드라. 또한 성덕■■■ 공검청직하고 문학 정덕함을 ■■■■■ 충의 하시고 만죄 추앙허너니(구활자본, 1장)

제시한 <예 1>은 세책, 방각본, 활판본의 시작 부분이다. 세 본 모두 주인공 장백의 가계(家系)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예문을 보면 세책과 활판본은 조사와 표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자구(字句)가 대부분 일치함을 볼 수 있고, 경판본은 내용은 같지만 두 본과 다름이 확인된다. 이처럼 세책과 활판본 간의 친연성, 방각본과의 차이점은 계속 이어진다.

<예 2>

- (전략) 동쥬 스십여 년에 일점 혈육이 업더니, 일〃은 비몽스몽간에 월궁선녀ㅣ 계화 흥가지를 부인 품속에 너코 왈 부인이 솟을 어엽비 역이쇼셔 허며 간디 업거늘 놀나 씨다르니 남가일몽이라.

17) 이창현, 『경판 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 태학사, 2003), 23-432.

부뵤 뭉스를 말하며 질기더니 과연 그달부터 텃기 잇서 십삭 만에 일지 옥녀를 탄생하니 용모와 지질이 괴이하고 요조흔 숙덕이 겸비하니 공의 부뵤 익중하니 남조 안임을 이달니 하고 무즈흙을 슬허하여(세책본, 권1, 1장)

- (전략) 년기 오십의 후스를 니을 기리엿고 다만 녀지 이스미 공의 부뵤 미양 슬허하더니 당공이 " 무로 벼슬의 뜻이 엷고 심시 불평하여 조정을 흐직하고 고향의 도라가 농업으로 세월을 보더니 (후략), (경관 29장본, 1장 전엽)
- (전략) 동쥬 스십여 년에 일점 혈육이 엷더니, 일 " 은 비뭉스몽간에 월궁선녀 | 계화 흐가지를 부인 품속에 녀코 왈 부인이 쫓을 어엿비 역이쇼셔 하며 간디 엷거늘 놀나 췌다르니 남가일뭉이라. 부뵤 뭉스를 말하며 질기더니 과연 그달부터 텃기 잇서 십삭 만에 일지 옥녀를 탄생하니 용모와 지질이 괴이하고 요조흔 숙덕이 겸비하니 공의 부뵤 익중하니 남조 안임을 이달니 하고 무즈흙을 슬허하여(구활자본, 1장)

<예 2>는 세책과 구활자본, 방각본의 차이와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시한 내용은 장백의 누나인 장소저에 대한 것이다. 세책과 활판본은 장씨부부가 장소저를 낳고 아들이 없음을 서운해 하지만 장소저의 태몽, 출산의 과정은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하지만 방각본에서는 이러한 내용 없이 밑줄 친 부분처럼 짧막하게 기술했다. 이렇게 세책과 구활자본의 친연성, 방각본의 차이는 계속 진행 된다.

그러나 장씨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장소저와 장백 두 남매가 이별하며, 장소저가 이승상 부인의 양녀(養女)가 되면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이때부터는 세책과 방각본이 친연성을 나타내며 구활자본은 이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예 3>

- (전략) 세 권 칙을 니여쥬거날 (중략) 도스 부 " 게 하직고 산의 나려 중원을 향할시, 날이 저물어거 날 쥬점의 드러가 쉬더니, 문득 흐 슨람이 드러오거날 (후략) (세책권, 권1, 15장 앞-뒷면)
- (전략) 세 권 칙을 니여쥬거늘(중략) 도사 부 " 게 흐직하고 산의 나려 중원으로 향할시, 날이 저물거 늘 쥬점의 드러 쉬더니, 문득 흐 슨람이 드러오거늘 (후략) (경판본, 8장 전엽)
- (전략) 벽장 속으로서 연적 갖흔 것슬 니여 쥬어 왈, 이것은 일흙이 빅만갑이라 이 속에 신병이 들과 화약, 염초 무슈이 들엇다 하고, 또 철장을 쥬며 왈 (후략) (구활자본, 13-14장)

<예 3>은 주인공 장백이 천관도사를 만나 수학하고 스승과 헤어지는 장면이다. 세책과 방각본은 스승으로부터 세 권의 비서(秘書)를 받고 주점(酒店)에서 장수(將帥) 이정을 만나는 것으로 동일 하게 전개되고 자구 또한 일치한다. 하지만 활판본에서는 천관도사에게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고, 이후에는 남주인공 장백이 배필(配匹)을 만나 결연(結緣)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자구 또한 다르다.

이처럼 세책, 방각본, 활판본을 서로 대조해보면 흥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 남주인공 장백이 천관도사에게 무술을 전수받기 전까지는 세책과 활판본이 일치하고, 이후는 세책과 방각본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지금 볼 수 있는 구활자본과 동일한 세책이 존재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방각본이 출현하면서 세책의 변화가 생겼다. 방각본의 내용을 염두에 둔 세책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새로 세책이 만들어진 이유는 방각본의 내용에서 기인한다. 그 이유는 방각본이 원래 세책보다 서사 전개가 빠르고 독서에 방해가 되는 내용이 대부분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삭제된 내용은 장백이 불운한 스님과 만나 겨루는 장면, 세 부인을 얻는 장면, 악귀(惡鬼)인 운향을 장백이 물리치는 장면이다. 이 내용은 재미는 있으나 주인공 장백이 주원장과 건국(建國)을 놓고 다투는 점을 생각한다면 서사의 긴밀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방각본은 이러한 이유로 이 내용들을 모두 없애고 장백이 주원장과 대결하는 구도로 집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방각본이 간행되자 세책업자는 발빠르게 천관도사를 만난 이후의 내용은 방각본을 가져다 베껴 쓰고 분권(分卷)시켜 세책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어했다. 이러한 아현 세책점의 영업 전략은 또 다른 아현 세책본인 『금향정기』에서도 볼 수 있다.<sup>18)</sup>

이처럼 세책 고소설 『장백전』을 통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책점에서는 단순히 기존에 만들었던 책을 계속 보수하면서 대어했던 것이 아니라, 독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이면서도 유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교토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장백전』은 구활자본의 저본이 세책이었다는 점, 방각본이 간행되자 기존에 있는 세책의 뒷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방각본을 베껴서 대어했다는 세책점, 세책 고소설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3.2.2 아현 세책점의 세책 고소설 『장한절효기』

고소설 『장한절효기』는 아내의 정절과 아들의 효를 내용에 담고 있어 윤리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본은 필사본, 방각본, 활판본의 형태로 다양하다.

이 소설은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역시 세책 고소설을 포함시켜 이본 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책 『장한절효기』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세책과 구활자본의 관계이다.

18) 이윤석, 유춘동, 『금향정기』 (서울: 경인문화사, 2007), 168-171.

구활자본 『장한절효기』를 보면 원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예 4>

- 원슈를 미즈면 반드시 순종홀니 업스리니 엇지하면 혼번 은혜를 갖쳐 숙녀의 마음을 깃부게 하고  
또 혼 7만이 필한을 죽여 나의 원을 성취홀고 하고 정히 울울미결하더니, 문득 일계를 생각고  
크게 깃거하니 이 무슴 계칙인고. 하회를 석남하라. (활판본, 4장)

<예 4>는 구활자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구절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절이 왜 본문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구절은 세책 고소설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예 5>

- 원슈를 미지면 순종혈 일 업시리니 엇지하면 은혜를 갖쳐 숙여 의 마음을 깃게 하리오 하고 또 혼  
가마이 필한을 죽여 나의 원을 일울고 하며 울 ” 미결하더니, 문득 일계를 생각고 크게 깃거하니  
이 무슴 흥계고. 하회를 보라. (세책본, 권1, 5장 앞-뒷면)
- 원슈를 미즈면 반드시 순종홀니 업스리니 엇지하면 혼번 은혜를 갖쳐 숙녀의 마음을 깃부게 하고  
또 혼 7만이 필한을 죽여 나의 원을 성취홀고 하고 정히 울울 미결하더니, 문득 일계를 생각고  
크게 깃거하니 이 무슴 계칙인고. 하회를 석남하라. (활판본, 4장)

<예 5>은 세책본과 구활자본을 대조해 본 것이다. 위의 예문을 보면 구활자본과 세책 고소설의 내용, 자구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구활자본 본문에 “하회를 석남하라”가 인쇄된 이유는 세책을 가져다가 출판의 원고(原稿)로 사용하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출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활자본 『장한절효기』는 세책을 저본으로 만든 것임이 분명해진다.

이처럼 구활자본은 세책 고소설을 내용을 그대로 전재(轉載)했지만 일부 변화를 시도했다. 그것은 원 세책에는 없던 장회(章回)와 장회명(章回名)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세책을 가져다가 구활자본으로 만들면서 장회와 장회명을 새로 만든 사례는 『금방울전』, 『금향정기』, 『장국진전』에서도 볼 수 있다.

교토대학에 있는 아현 세책점의 세책 고소설 『장한절효기』는 구활자본의 원천(源泉)이 세책 고소설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 3.2.3 아현 세책점의 『제갈무후전』

고소설 『제갈무후전』은 중국소설 『삼국지연의』 전체 내용 중에서 55회에서 93회 내용을 따로



일성 표향의 위연니 나라 명학과 부하 장수를 잡아 크 치료오니 공명이 무스를 호령하여 명학을  
풀니고 꾸지져 왈 (세책본, 권2, 1장 앞면)

<예 7>은 경판본을 가져다가 어떻게 분권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제시한 내용은 제갈공명이 맹획을  
7번 사로잡았다 7번 놓아주는 칠종칠금(七縱七擒) 대목이다. 경판본은 맹획을 잡은 제갈공명의  
발화가 있고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세책은 이 대목에서 내용을 분권(分卷)해서 권2의  
시작부분으로 만들었다.

<예 8>

- 이책 천슈티슈 마준이 본부 중랑장 강유로 군스 오천을 쥬어 마즐시 즈룡이 크게 워여 왈, “나는  
상산 조즈룡이라. 썰니 느와 항복하여 쥬륙을 면하라.” 하고 군스를 지촉하여 성을 치니 성상의셔  
함성이 진동하며 스면의 화광이 하늘의 다향는디 혼 소년 장쉬 압흘 당하여 창을 빗기고 말을  
노화 크게 워여 왈, (경판본, 15장 후엽)
- 이책 천슈티슈 마준이 본부 중랑장 강유로 군스 오천을 쥬어 마즐시 자룡이 크게 웨여 왈, “나는  
상산 조즈룡이라. 썰이 느와 항복하여 죽이믈 면하라.” 하고 군스를 지촉하여 성을 ■니 성상의셔  
함성이 진동하며 스면의 불빛치 하늘의 다향더라. 하회 분석허라. 세즈 정유 스월일 필셔, (세책본,  
권2, 27장 뒷면)

<예 8>은 세책에서는 권2가 끝나는 대목이고, 경판본에서는 강유와 조자룡이 대결하는 대목이다.  
경판본에서는 내용이 계속 전개되지만 세책은 이 대목에서 권2를 마무리하고 권3의 시작으로 만들었  
다. 이러한 텍스트 간의 관계를 따져볼 때, 아현 세책점에서 대여해 주었던 『제갈무후전』은 경판본을  
가져다가 원고(原稿)로 사용했고, 이를 적절히 분권하며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권으로 된  
경판본을 가져다가 내용을 3등분하여 세 권의 세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여했다.

이처럼 세책 업자가 경판본을 저본으로 세책을 만든 경우는 아현동 세책점 세책의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판본의 내용이 기존의 내용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  
기도 하고, 경판본의 판매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이를 쉽게 볼 수 없었던 독자들을 겨냥한 세책점의  
영업 전략에서 기인한다.

이상과 같이 교토대학에 있는 세책 고소설을 살펴보았다. 아현 세책점의 세책을 검토한 결과 구활  
자본 고소설의 저본(底本)이 세책이었다는 점, 세책업자가 방각본(坊刻本)을 베껴 세책으로 사람들  
에게 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세책을 연구할 때, 방각본과의 관계, 두 상업출판물과의 관계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자료를 보면 방각본이 간행되면서 세책점에 영향을 미쳤고 대본(貸本)에까지 변화를 주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세책을 연구할 때, 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생각하며, 구활자본의 원천으로서의 세책이 지닌 역할뿐만 아니라 방각본과의 관계, 이로 인한 영업의 변화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토대학에 있는 아현 세책 고소설은 이러한 새로운 세책점의 운영, 텍스트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 4. 결 론

이상과 같이, 일본 교토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11종 28책의 세책 고소설을 살펴보았다. 이 자료는 모두 가와이가 아현 세책점에서 구매한 것이란 점을 밝혔고, 이 책들에 있는 낙서가 세책점의 운영 방식, 당대의 시대적 정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마지막으로 세책 고소설 『장백전』, 『장한절효기』, 『제갈무후전』과 방각본이나 세책본과의 대조를 통해서 텍스트의 특성, 생성 방식을 논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활판본의 저본이 세책 고소설이었다는 점, 아현 세책점에서는 방각본이 간행되자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경판본을 저본으로 세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대어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교토대학에 존재하는 세책 고소설은 고소설 연구에서 세책 연구가 왜 중요하고 이 텍스트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분량의 제한으로 결과 위주로 글을 서술했다. 앞으로 각 작품에 대한 자세한 비교가 필요가 있고, 『장백전』, 『장한절효기』, 『제갈무후전』 이외의 아현동 세책 고소설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고 제시하기로 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아현 세책점, 아현동 세책점으로 용어가 혼동되어 있다. 세책점의 실체에 맞는 적절한 용어 선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 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일본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 11종 28책.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소장. 『河合博士舊藏朝鮮書籍目錄』.

강문중. “장백전의 설화화 과정과 그 양상.” 『장서각』 24(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0). 61-87.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김용기. “『太原誌』의 서사적 특징과 왕조교체.” 『고소설연구』 34(고소설학회: 2012. 12). 187-215.

- 유광수. “세책본 고소설의 성립 연원과 제작 방식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29(고소설학회: 2010). 443-475.
- 유춘동. “근대 초기에 해외로 반출된 고소설의 문제.” 『코기토』 77(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2). 167-192.
- 유춘동. “서울대 규장각 소장, 토정-약현 세책 고소설 연구.” 『한국문화』 66(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6). 147-167.
- 유춘동. “세책본 소설 낙서의 수집, 유형 분류, 의미에 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45(열상고전연구회: 2015. 6). 149-170.
- 유춘동.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의미.” 『민족문화연구』 6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8). 283-309.
- 유춘동. “금향정기의 연원과 이본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 이대형.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면모.” 『민족문학사연구』 39(민족문학사학회: 2009). 28-53.
- 이윤석. 『조선시대 상업출판』. 민속원, 2016.
- 이윤석, 大谷森繁, 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 서울: 해안, 2003.
- 이윤석, 유춘동. 『금향정기』. 서울: 경인문화사, 2007.
- 이창현. 『경관 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 태학사, 2003.
- 정명기. “세책본 소설에 대한 새 자료의 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19(고소설학회: 2005). 227-254.
- 정병설. “일본 교토대학 소장 새 자료 소개: 한국 고전소설 14종 및 한글번역 『서상기』 외.” 『문헌과 해석』 28(문헌과 해석사: 2004). 216-227.
-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정인혁. “월령적 사유와 『장백전』의 의미.” 『서강인문논총』 28(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8). 171-201.
-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 서울: 박이정, 2006.
- 주수민. “장백전의 형성동인과 주제의식.” 『어문연구』 41(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6). 207-231.